
發明을 創出하기 위한 힘의

發明은 模倣에서 시작되며 그 源泉은

元來 人間은 人類의 創生이래 人間 각자의 環境이나 行動속에서 많은 물건이나 여러가지 現象을 차례로 發見하여 그것이 人類自身的 生活 및 行動의 安全이나 便利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면 곧 그것을 잘 利用하는 方案을 생각해내고 다시 그것을 土臺로 하여 보다 더 便利한 물건이나 技術을 만들어 내면서 發明을 해왔다. 이와 같은 일을 차례로 蓄積하여 드디어 오늘날의 科學文明을 쌓아올린 것이다. 그런데 人間은 人間獨特의 發聲으로 우선 言語를 考案해내고 돌이나 나무로 生活行動을 위해 必要한 道具를 만들어 내고 드디어 불까지 만들어 食生活도 改良하였다. 이와 같이 人間은 오랜 옛날부터 얼마나 優秀한 머리와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萬年前에는 돌도끼를 조금 改良하는 데에도 몇 千年이 걸렸었다 더구나 그와 같은 改良이 當時의 人間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또 現代人에게 있어서도 知能이나 技術이 아무리 進歩했다고 하더라도 適合한 敎養과 訓練을 받지 않은 누구나가 모두 發明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頭腦의 惠澤을 입은 人類라고 하더라도 몇 10萬年이나 몇 100萬年이라고 하는 긴 人類의 歷史속에서 온갖 天然, 自然의 現象이나 물건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頭腦의 訓練을 헤오지 않았으면 現代에 와서 막상 무엇인가를 考案하거나 發明하려고 해도 감자가 잘 될리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科學文明도 文化社會도 이 오랜 人

間의 歷史에 따라서 人類文化의 先人이 된 많은 先覺者들의 不斷한 努力과 貢獻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 人類의 歷史는 벌써 어느 사이에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元來 모든 人間은 바보나 狂人이 아닌 이상 다른 動物과 달라서 그때 그때 必要에 따라서 事物을 생각하고 考案하고 發明을 할 수 있는 優秀한 頭腦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頭腦와 그것을 받치고 서있는 몸체와 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活動할 수 있는 이 人體야말로 造物主인 神이 特別設計하여 모든 人間에게만 베풀어준 선물인 것이다.

技術이든지 무엇이든지간에 가끔 無에서 有를 만들어 내거나 다시 그것을 改良할 수 있는 것은 즉, 發明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地球上에서는 오직 人間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進歩性이 없이 남의 것을 模倣하는 것을 좋지 않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創造의 意慾이 없이 徹底하게 狡猾한 생각으로 模倣에 專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進歩的인 創作을 意識하고 模倣하는 것까지 排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人類가 오늘날의 文明에 이르기까지의 科學·技術·기타 人間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은 거의 先人의 創作의 模倣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나 하나를 純粹하게 創造해낸 것이라고 하면 거의 無에 가까울 정도로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狡猾한 생각을 버리고 進歩를 위하여 優秀한 것을 흉내내어 거기에 어느 程度의 進歩된 것을

根源

創造力



洪 載 日

〈辨理士・本會 發明教室 講師〉

덧붙이는 것이라면 模倣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元來 發明의 源泉은 創造力에 있는 것이고 發明은 人間의 創造力이 낳은 着想을 技術로써 뒷받침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發展하는 科學技術의 所産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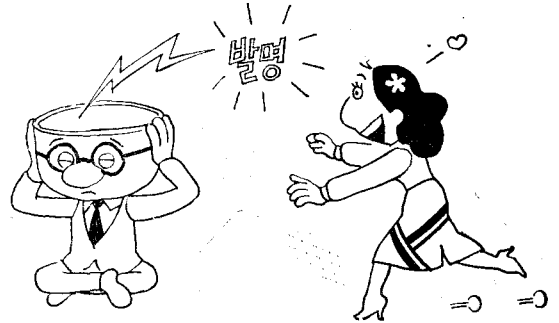
이와 같은 科學技術의 進展속에서 創出된 發明의 蓄積은 必然的으로 科學技術의 潛在力을 높이고 높은 潛在力이 또 다음의 發明을 創出한다. 發明과 科學技術과의 이와 같은 共同成長은 展開되어가는 現代科學技術의 한 모습인 것이다.

오늘날 노도와 같이 急變하는 技術革新속에서 한 分野의 發明은 다른 技術分野에 波及되고 또 새로운 技術體系를 만들어 간다. 發明이라는 것은 個人의 創造力에 뒷받침된 人間의 叡智속에서 創出되는 것이다. 過去는 물론 現代에 있어서도 發明에 있어서 個人만이 가지는 創造力의 役割에는 變함이 없는 것이다.

發明을 創出하는 創造力은 숨어있는 課題를 찾아내서 길이 없는 곳에 課題解決의 길을 찾아내는 힘이다. 先人の 발자취에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가닿는 곳은 先人이 이미 到達했던 곳에 不過한 것은 말할것도 없다. 깊은 技術知識과 銳利한 洞察力에 의하여 비로소 先人이 찾아내지 못했던 課題와 解決方法을 自己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發明의 主體로서 發明하는 사람이 環境의으로 發明推進 能力을 잘 發揮할 수 있으면 그 以上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環境이나 條件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克服해 가는 것도 發明推進의

KIPA 컬럼



한 能力이다. 그러면 發明推進能力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크게 關係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個性, 둘째는 洞察力, 셋째는 行動力이다. 個性은 사람의 性向인데 發明者는 누구나 革新志向性이 강한 사람이며, 傳統에 얽매어서 事物을 생각하는 思考方式을 갖는 傳統志向의 人間과는 다르다. 恒常 새로운 것에 대하여 關心을 가지고 理解에 努力하여 事物의 解明에 挑戰하는 기개를 가진다.

洞察力은 事物의 本質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같은 發明을 하더라도 洞察力이 있는 사람은 浪費가 적고 보다 效果的인 方法을 찾아 내게 된다. 또 洞察力은 經驗을 쌓아감에 따라 知的 能力과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며 이것이 化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努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環境이나 條件이 좋아도 좋은 發明을 期待하는 것은 無理일 것이다.

여기서 行動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目的을 實現시키는 行動力을 말하는데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發明의 完成을 위하여 實現하는 方向으로 일을 前進시키는 것이다. 發明을 創出하는 發明人에게는 이와 같은 個性, 洞察力 및 行動力등이 必要한 것이다. <∞>